

[기획] >> 4면
제59대 설캠 총학 인터뷰

[기획] >> 5면
불충분한 휴게공간

[사문] >> 8면
직장 내 괴롭힘

[학술] >> 9면
트럼프발 관세전쟁



제59대 총학생회장단이 2025년에 올릴 변화는?

지난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학교에 다양한 변화를 올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계획한 후보 '박동'이 당선됐다. 이에 외대학보는 나민석(사회·정치 22) 총학생회장과 송준우(상경·경제 22) 부총학생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 4면에서 계속

현재우 기자 10jaewoo@hufs.ac.kr

김태경 교수팀 나노소재 연구 성과, MoO₃ 유전상수 이미지화 성공

김태경 우리학교 전자물리학과 교수(이하 김 교수) 연구팀이 전기 힘 현미경(Evans Blue Fluorescence Microscopy) 기술을 활용해 MoS₂ 박막을 산화해 생성한 MoO₃ 나노구조체의 국소적 유전상수 값을 시각화하는데 성공했다. MoO₃는 약 25배란 높은 유전상수 값을 가지며 이는 기존의 SiO₂ 소재 대비 6배 이상 높은 값이다. MoO₃는 차세대 나노 전자 소자를 위한 유망한 고유전율(high-k) 유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나 MoO₃ 나노구조체의 정확한 유전 특성은 그동안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었다.

김 교수 연구팀은 산화 주사 탐침 리소그래피(o-SPL) 기법을 통해 MoS₂ 박막을 산화해 MoO₃ 나노구조체 어레이(array)를 제작했다. 이후 전기 힘 현미경과 유한 요소 계산(FEM) 방법을 활용해 MoO₃ 나노구조체가 높은 유전상수를 가지며 구조체 크기와 관계없이 값이 일정하게 유지됨을 입증했다.

이 결과는 기존 나노 전자 소자에서 흔히 관찰되는 크기 의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를 제공한다. 즉

향후 MoO₃ 나노구조체가 고성능 집적 회로 및 나노스케일 절연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팀은 고해상도 전자현미경(HRTEM)과 에너지 분산 X선 분광법(EDS)을 활용해 MoO₃ 나노구조체가 비정질 상태를 확인했으며 이는 기존 비정질 MoO₃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보완하는 중요한 발견으로 평가된다.

김 교수는 "MoO₃ 나노구조체는 전자 소자뿐만 아니라 광학 및 센서 응용 분야에서도 높은 활용 가능성을 지닌다"며 "이번 연구는 나노스케일(Nano Scale) 전자 소자에서 고유전율을 갖는 새로운 나노소재의 가능성을 열어줌과 동시에 차세대 소자에서 새로운 개념의 절연체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재료 과학 분야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저명학술지 나노 레터스(Nano Letters)에 지난 1월 13일자로 온라인상에 게재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본 연구 사업 지원으로 수행됐다.

김민서 기자 09kimminseo@hufs.ac.kr

우리학교 양재완 국제교류처장, 제26대 한국대학국제교류협의회 회장 선임돼

양재완 우리학교 국제교류처 처장(이하 양 회장)이 제26대 한국대학국제교류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Foreign Student Administrators, 이하 KAFSA) 및 전국대학교국제처장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Deans of International Affairs, 이하 KADIA) 회장으로 선임됐다. 양 회장은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으로서 두 협의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제반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양 회장의 임기는 지난 1월 1일부터 1년간 지속된다.

지난 1999년에 설립된 KAFSA는 고등교육기관의 국제교류 부서장 및 실무자들 간의 업무 협조와 정보 교류를 통해 4년제 회원대학 및 기관 간 국제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삼미국국제교육자협회아시아태평양국제교육협회△유럽국제교육자협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KAFSA는 △가천대학교△단국대학교△부산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한양대학교 등 전국 92개 대학이 회원교로 가입했다. 또한 스에스에이에프 코리아(SAF KOREA)△이티에

스 코리아(ETS KOREA)△플라이와이어(Flywire)가 기관 회원으로 가입했다. 회원 대학은 KAFSA가 제공하는 국제 교류에 대한 최신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워크숍(Workshop) 및 세미나(Seminar) 등의 교육 프로그램(Program)에 참여할 수 있다.

KADIA는 한국 고등교육 기관의 국제 교류를 책임지는 부서장 협의체로 국제 교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목표로 대학 간 정보 교환 및 협력을 촉진하는 단체다. KADIA는 KAFSA의 운영 방식에 따라 전국 4년제 국제교류 부서장에 한해 1년마다 신규 등록과 갱신이 이뤄진다.

양 회장은 "우리학교의 국제화 기반 시설과 글로벌 네트워크(Global Network)를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한국 대학들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며 "해외 대학 및 기관들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은희 기자 10kimeunhui@hufs.ac.kr



서울우유 체다치즈

우리치즈하자

SEOULMILK
Cheddar
Sliced Cheese

서울우유 체다치즈 모델 지창욱



설렘 가득한 캠퍼스, 2025 새맞이 행사 개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우리학교 제59대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 '박동'과 제41대 설캠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커스텀(Custom)'이 'Departure: 외대여 세계로'란 제목으로 '2025 한국외국어대학교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입생 환영회와 동아리 박람회도 동시에 개최된 것으로 부스(Booth) 운영과 무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전체 부스는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됐다. 설캠 국제학사 및 법학관과 인문과학관 앞에 6개의 총학 산하 부스와 41개의 동아리 부스가 설치돼 신입생 및 재학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중앙 부스 △간이 사진관△신세계 사주 타로△폰즈(POND'S) 팝업스토어△한국경제신문 커피차가 운영됐다. 신입생들의 입학 축하하기 위해 본관 앞 총학 부스에선 양일 오전 10시부터 우리학교의 색을 더한 환영 키트를 선착순 500명에게 배부했다. 환영 키트는 △노트북 파우치△보조 가방△2025 새맞이 자료집으로 구성됐다. 또한 총학은 '소원 공작소'란 이름의 부스를 운영했다. '소원 공작소'에선 신입생들이 버킷리스트(Bucket List)를 작성하고 조연 카드를 뽑으면 선물을 제공했다. 동연 중앙부스에선 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6개의 분과 중 4개 이상의 분과 도장을 받아온 학생 중 선착순 200명과 추첨을 통한 400명에게 △보조배터리△부(BOO) 인형△블루투스 스피커(Bluetooth Speaker) 등을 증정했다.

동아리박람회에선 각 부스 별로 동아리 소개가 적힌 입간판을 준비하고 동아리의 정체성이 담긴 행사를 기획해 우리학교의 다양한 동아리를 홍보했다. 많



▲무대를 즐기는 학생들

은 신입생 및 재학생이 동아리 부스에 방문해 여러 행사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KR Buddy 부스를 운영한 박은슬(중국·중외통 22) 씨는 "눈이 와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부스에 방문해주어 성공적으로 부스 운영을 마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행사 첫째날 오후 5시부터 신입생 환영 무대가 진행됐다. 무대 프로그램은 △동아리 공연 및 학과 소개 영상△Q&A△외대인 선포식△유다밴드와 가수 카터가든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동아리 공연에선 △아이거스(AEGIS)△오디

오픈(AUDIOPHIL)△외인부대△에프에이(F.A)△재인(JANE)△휴스도비(HUFS DOVY) 등이 무대를 장식했다. 오디오픈 부원으로 공연에 참여한 이나운(상경·경제 22) 씨는 "많은 학생들이 공연을 보러와 기뻐"며 "신입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공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보람찼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아리 공연 중간엔 학과 홍보 영상을 통해 각 학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학과 소개 영상은 최근 넷플릭스(Netflix)에서 큰 성공을 거둔 예능 '흑백요리사'를 재해석해 '외대요리사'란 주제로 많은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했다. Q&A 시간엔 유튜버 에이미(Amy)가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해 사전에 수합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대인 선포식에선 각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가 인사와 소개를 한 뒤 '나의 사랑 외대여'를 부르며 외대인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후 초청 가수 유다밴드와 카터가든(Car, the garden)의 무대가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번 신입생 환영회에 참여한 김나린(영어·영문 25) 씨는 "신입생을 위해 기획한 행사 덕에 학교생활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긴장이 풀렸다"며 "멋진 행사를 기획해주신 선배들에게 감사했으며 덕분에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민서 기자 09kimminseo@hufs.ac.kr

우리학교 글로벌창업지원단, 올해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사업 선정

우리학교 글로벌창업지원단이 올해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 운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이번 해 12월 31일까지며 총 2억 1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로 운영될 계획이다.

우리학교 글로벌창업지원단은 선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Global Online Platform) 입점 지원△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 실습△온라인 창업 특화 과정△인공지능과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Digital Marketing) 교육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최고위 과정'을 운영한다.

본 사업에선 이번 달 첫 교육생 모집을 시작으로 200명의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5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창업 교육을 진행한 후 △글로벌 온라인 시장 진출 네트워킹(Networking) 행사△성과 공유△컨설팅(Consulting)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학교 전경 (출처: 전략홍보팀)

우리학교 글로벌창업지원단 이정 단장(이하 이 단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온라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 단장은 "특히

글로벌 최고위 과정을 통해 차별화된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Global Business Network)를 적극 활용해 참여자들이 더욱 원활하게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우리학교가 소상공인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10kimeunhui@hufs.ac.kr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서비스 사업 신규 선정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청년고용서비스 사업인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수행 기관으로 신규 선정됐다. 이로써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기존에 수행 중이던 7억 원 규모의 '거점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과 더불어 새롭게 선정된 9억 2,000만 원 규모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1억 1,200만 원 규모의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더해 연간 총 17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재학생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해 학생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학년에 맞는 다양한 취업 관련 훈련을 할 수 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재학년의 경우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고학년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훈련 및 일·경험 연계 등 취업역량을 재고할 수 있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은 '쉬웠음' 청년을 예방하기 위해 졸업 초기에 취업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이다. 줄

임성 특화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서류·면접 컨설팅(Consulting)△선배 멘토링(Mentoring)△1:1 상담 등을 지원한다.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대학교 중 최장기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과 2023년 2개년 연속으로 사업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이 지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본부장은 "학생들의 성공이 곧 대학의 성공이란 생각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학내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신규 사업 선정을 통해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의 효과적 이행과 더불어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사업 운영에 대한 각오를 전했다.

김민서 기자 09kimminseo@hufs.ac.kr

우리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자랑스런 외대인상' 시상식 개최



▲서경교 우리학교 교수(출처: 전략홍보팀)

우리학교 총동문회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 롯데호텔 서울 3층 사파이어볼 룸(Sapphire Ballroom)에서 이번 해 정기총회 및 '자랑스런 외대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해당 행사에선 뉴코리아진흥(주) 홍광희(동번역·스페인 88) 대표(이하 홍 대표)를 '자랑스런 외대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뉴코리아진흥(주)은 국내 주요 △방송사△이동통신사△제강사 등에 △선진기술△필수 소재△핵심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다. 포스코(POSCO)를 비롯한 주요 제강사에 기술 및 제품을 공급하고 국내 산업 전반에 동 및 동합금 소재 관련 제품을 공급 중이다. 홍 대표는 대한민국 수입 제도 개선과 국익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총동문회는 서경교(사회·정외 78)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서 교수)를 '자랑스런 외대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서 교수는 28년 6개월 동안 후학 양성과 학교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 교수는 △비교정치△여성정치△정치변동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필리핀 민주주의와 정치: 필리핀 대중들의 인식과 평가' 및 '인도네시아 대중들의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등 동남아시아와 관련한 주요 논문들을 집필했다. 서 교수는 "지난 1996년 모교에 교수로 부임한 이후 후배이자 제자들을 키워내는 제 사명에 대

한 열정과 자부심은 식었던 적이 없다"며 "앞으로 모교의 발전과 후학들을 위한 응원의 기도를 잊지 않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우리학교 '자랑스런 외대인상' 시상식은 1990년부터 매년 총동문회가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문 중 국가 및 사회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둬 우리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총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들에게 수상하는 시상식이다. 지난해 '자랑스런 외대인상' 수상자로 홍익희(서양어·스페인 73)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 밀라노코리아비즈니스센터(Milano Korea Business Center)장과 김석필(서양어·프랑스 80) 비바체컨설팅·비바체랩(Vivace Consulting·Vivace Lab) 대표를 선정해 수상한 바 있다. 지난해 '자랑스러운 외대공로상'은 조일연(서양어·프랑스 90) 현대로템(Hyundai Rotem) 아시아·태평양권역 본부장을 선정해 수상한 바 있다.

김은희 기자 10kimeunhui@hufs.ac.kr

대학가로 번진 탄핵 찬반 시위, 안전한 캠퍼스를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고려대학교(이하 고려대)에서 열린 시위에도 많은 외부인이 참여하면서 고려대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었다. 이어 지난달 28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에서 열린 시위의 경우 외부인들의 참여로 격해진 분위기 속에 우리학교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탄핵 찬반 시위와 우리학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탄핵 찬반 시위와 우리학교

지난 24일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탄핵 반대 시국선언 공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28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던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탄핵 찬성 측의 맞불 집회로 이어지면서 그 규모가 커졌다. 유튜버를 포함한 외부인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현장은 더욱 격화됐고 한 탄핵 찬성 시위자가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날 시위로 인해 우리학교 학생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다. 우리학교 학생 A씨는 “시위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 B씨는 “도서관까지 시위 소음이 크게 들렸다”며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소음 탓에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집회 당일 공식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통해 “출입 통제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의 교내 출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 여러분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사이버관 쪽 정문이 아닌 교수회관 쪽 출입문으로 통행을 우회해 주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후 총학은 입장문을 통해 “총학생회는 오직 우리학교 구성원의 안위와 대학의 치안 유지란 입장만을 견지하며 대학 본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경찰에 협조를 구했다”며 “유사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구성원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외부인 등으로 인해 구성원의 안전한 일상이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학교 안전보건관리팀 역시 “학교 내외에서 우리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부서가 안전 기준과 매뉴얼을 숙지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교는 매년 홈페이지에 ‘대학안전관리계획’을 게시하고 있다. 이번 해 역시 ‘2025년 서울캠퍼스 대학안전관리계획’에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명시하고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했다. 또 시위 당일 학생지원팀에서 현장에 안전관리 인원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 시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팽과 리스북△진스△확성기 등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집회·시위 소음 허용 기준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해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경우 기준 이하의 소음을 유지하게 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집회에서의 소음은 사실상 규제하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집회자가 잠시 크게 발언하고 이후 소

리를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평균 데시벨(decibel)을 낮추는 경우가 있다”며 “규제 시 주최 측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타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서강대학교는 지난 27일 예정된 시위를 앞두고 외부인을 포함한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인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대학 구성원의 △교육△안전한 학습 환경△연구 활동 등의 보장을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캠퍼스 내 청년광장은 출입이 전면 금지됐고 교문을 통행하는 학생은 교문 출입 시 학생증을 확인한 후에만 통행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설캠 총학은 “지난달 28일 집회 이후 진행되는 모든 집회 및 기자회견은 총학과 학생인재개발처가 사전적으로 정보를 전달받아 현장에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학교는 교육부에서 소집한 피해사례 대학 대책 회의에 참여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명문화 발의

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진척 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언급한 대학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학생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긴 하나 정치적 집회와 같은 특수적인 상황에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학교는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학문의 장으로서 대학 구성원의 안전과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교내 집회 및 시위에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우리학교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과 함께 자유와 학습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박지연 기자 10jiyeon@hufs.ac.kr

후속보도

드디어 축소된 졸업학점, 남겨진 과제는?

지난 1082호 기획 기사에선 우리학교 졸업학점 축소 문제에 대해 다뤘다. 2025학번 신입생부터 졸업학점이 134학점에서 126학점으로 축소됐지만 재

학생들에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여전히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졸업학점 축소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졸업학점 축소 현황

타 대학과 비교해 높은 우리학교 졸업학점에 대한 축소 요구는 꾸준히 언급돼 왔다. 이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 ‘박동’은 졸업 학점 축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 2023학년도 설캠 총학 ‘도약’에선 졸업학점 축소 필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우리학교 학생의 98%가 ‘졸업학점 축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마침내 올해부터 졸업학점이 축소됐지만 신입생인 2025학번부터만 적용되며 기존 재학생에 대한 소급 적용은 배제된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 학교의 졸업학점이 기존 134학점에서 126학점으로 축소됐지만 우리학교에서 가장 높은 졸업학점을 요구하는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융합인재대학과 사범대학의 졸업학점엔 변동 사항이 없다.

외대학보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졸업학점 축소’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기존 재학생들에게 졸업학점 축소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이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는지 대해 묻는 질문에 70%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학생 A씨는 “등록금 인상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하면서 졸업학점 축소는 신입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졸업학점 축소를 취업 준비나 진로 설정을 위한 자기 개발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는 점이 가장 부럽다”고 말했다. 졸업학점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파생 문제 역시 적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학교 학생 B씨는 “졸업학점 축소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데 강의 수가 줄어들어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학점을 채우기 위해 추가학기나 계절학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막막하다”고 전했다. 외대학보에서 강의시간표를 바탕으로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설캠 기준 전년도 대비 올해 개설된 학부 및 전공 강의 수는 121개 감소했다. 설캠 총학은 “졸업학점 축소 및 기초 과목 도입 등 학사제도상의 전반적인 이유로 강의시수가 대폭 감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C씨는 “강의 수가 줄어 재수강 과목을 포함한 수강신청이 어려워졌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강의시수 감축으로 수강 가능한 강의 폭이 줄었기 때문이다. 졸업학점 축소에 대한 학교 측의 충분한 설명 또한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동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 측이 졸업학점 개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39.9%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31.2%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타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자.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2021학년도에 전공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부전공 이수 기준학점이 하향 조정됐으며 이는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소급 적용됐다. 건양대학교의 경우 2021학년도 복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인증 적용년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2016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졸업기준학점 축소로 개설강좌 수가 감소한 것에 대한 조치다.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복학생을 대상으로 학년에 관계없이 복학년도 학년에 따라 교육과정 연도를 변경 신청하는 방식이다. 또 20학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 적용됐다. 고려대학교 한문학과는 2018학년도에 학부 전공교과과정을 개

편하면서 전공필수과목이 24학점에서 12학점으로 축소됐다. 이는 이중전공 및 복수전공자를 포함해 2014학년부터 소급 적용됐다. 성신여자대학교 바이오식품공학과는 경우 이번 해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실험 계열 학과의 지정 필수 교양과목을 축소했다. 또 공통교양 기초필수과목 학점이 기존 3학점에서 2학점으로 축소됐다. 완화된 기준은 2020학년부터 소급 적용됐으며 이전 학번 학생들이 변경 전 필수과목을 수강한 경우 또한 인정한다고 공지했다. 반면 우리학교 설캠 총학은 소급 적용에 대해 “등록금 인상과 함께 총장님께 직접 요구드렸다”며 “이후 교무처장님과 진행한 면담에서도 졸업학점 소급 적용을 요구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행정적 처리 절차 등의 이유로 소급 적용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당장 부족해진 과목 수로 인해 수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계절학기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학교 계절학기는 하계와 동계 총 두 번 개설되며 정규학기 종강 전 계절학기 수요조사를 통해 개설을 검토한다. 하지만 수요조사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며 실제 강의 개설 여부는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수강인원이 최소 30명 이상 충족돼야 하는 조건은 대부분의 강의가 개설되지 못하는 이유다. 따라서 강의 개설 결정 방식의 변경 및 개설 조건 완화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졸업요건의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 한해 계절학기의 최대 수강 가능 학점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설캠 총학은 “학습권은 학생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다”라며 “△강의 증설△분반 확대△하이브리드 강의 증설 등 실질

적인 대안을 제안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교무처가 제시하는 계절학기 강의의 폐강 기준이다”며 “단기적인 개선이 아닌 폐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구조적 해결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학생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요구로 졸업학점이 축소된 것은 유의미한 진전이다. 그러나 계절학기 확대 및 소급 적용에 대한 논의는 지속돼야 할 것이다. 외대학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졸업학점 축소의 소급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졸업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질문에 82.5%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설캠 총학은 “상반기 학사제도 전반에 대한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성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학우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우리학교의 변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학생들의 목소리에 대한 학교의 꾸준한 관심과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

박지연 기자 10jiyeon@hufs.ac.kr

제59대 총학생회장단이 2025년에 올릴 변화를 알아보자

지난해 11월 29일 제 59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에서 후보 '박동'이 당선됐다. 우 리학교에 변화를 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계획한 박동에게 많은 학생의 이목이 집

중되고 있다. 이에 외대학보는 나민석(사회·정치 22) 총학생회장과 송준우(상경·경제 22) 부총학생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Q1. 제59대 설캠 총학 선거에 출마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번 해는 우리학교의 운영체계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의제에 강점을 지닌 총학생회장과 전반적인 운영 및 복지에 강점을 지닌 부학생회장이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특히 올해 이런 강점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해라 판단해 출마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Q2. 무전공 모집이 시행되는 첫 해인 만큼 무전공 학생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TF팀을 모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TF팀의 구체적인△목적△소개△시행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무전공 TF팀은 무전공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겪는 아쉬운 점을 해소하고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무전공 TF팀은 다양한 단과대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모집이 완료됐으며 1차 회의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어 △민원 사항△커리큘럼 △미비△행정 처리 △미숙 등과 같이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 대학의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무전공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Q3. △공간 활용도 상승△낙후 시설 관리△도서관 좌석 부족 현상 등과 같이 시설과 관련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서관 열람실보다 로비와 자료실 개방에 대한 요구가 많았기에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간 활용도 개선과 관련해서 인문관 1층에 미디어 콘텐츠 제작 부서가 신설되며 일부 나아진 면이 있지만 여가서 멈추지 않고 총학생회혁신위원회란 새로운 기구를 발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탐구할 전담 기구로 보다 높은 수준의 요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간 활용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까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4. 적극적인 프로모션과 원활한 아티스트 섭외를 위해 이번에 '퀸쿠아트리아(QUINQUATRIA)'를 1학기로 변경하신걸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현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퀸쿠아트리아는 5월 19일~20일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논의 중이며 중앙 운영위원회 의견은 마친 상태입니다. 과거엔 축제 프로모션 팀이 퀸쿠아트리아에 맞춰 임박하게 발족돼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외협력국을 신설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미리 확보해 왔으며 그 결과 올해 풍성한 프로모션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 섭외는 최대한 학생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두 번 진행하기 보단 총학생회의 궁극적인 방향성을 고려해 한 번만 개최하고 남은 예산을 복지 행사와 기타 프로그램에 투자해 학내 분위기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Q5. 최근 군 E-러닝 수강 제도를 개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설캠 총학

'여운'의 공약과 차별화된 부분 및 앞으로 개선할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학생회장인 제가 과거 군 E-러닝 관장 국서에 속해 문제점 탐구와 인터뷰를 진행한 경험이 있기에 과거 '여운' 측의 공약이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는 다양한 교양 과목을 확대하고 '휴스커리어디자인(HUFS Career Design)'처럼 진로 고민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무처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학점 인정 횟수 제한 철폐라는 큰 산을 넘었으니 나머지 부분들도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6.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약 중 교수학습개발원(이하 교개원) 엘리베이터 설치가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공약의 경우 지난해 설캠 총학인 '여운'에서 이행 완료된 정책 중 하나로 파악되는데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교개원의 엘리베이터 설치의 지난해 혁신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됐으나 실질적으로 성취하지 못한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다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Q7. 연속성 있는 공약들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계승과 발전의 의미를 중시하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학우들이 생각했을 때 다른 총학일지 몰라도 저희는 하나의 연속적인 조직이라 생각돼 이에 대해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완전하게 끝맺지 못한 공약들은 저희가 이어받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Q7-1.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들이 연장선 상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공약들 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들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창업 관련 공약은 지난해 진행된 기업 탐방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진행되 학우들의 수요를 미리 파악해 인기 있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탐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연사 특강에선 동문 선배님들이 찾아오신 경우가 적었기에 이번엔 동문 중심의 특강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학생증의 발급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이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생증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 생긴 잔디구장의 경우 작년엔 운동장이용협의회를 발족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이번엔 더 발전된 학생 친화적 체육시설 대관 시스템을 정착시켜 학우님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Q8. 이번 공약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동 포럼 가입△등록금 인상△조기 대선△탄핵 찬반 시위 등 공약 외에도 많은 의제가 존재하기에 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동시에 공약을 추진하는 것이 쉽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다른 의제들을 경시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고 생각해 최대한 모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학우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설문 조사를 참여해주시기

나 소통 창구를 통해 의견을 피력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Q9. 다양한 변화에 대한 전달 방식 기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조는 모든 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풍부한 해설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등록금 관련 인스타그램(Instagram)에 올린 카드뉴스엔 △속기록 공개△여러 자료의 동시 첨부△학교 본부의 발언 포함 등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Q10.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 '박동'만의 철학이나 차별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문제를 해결할 때 거시적인 접근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농촌활동(이하 농활) 학점이 폐지된 상황에서 단순히 농활 학점을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안이 논의된 중앙교과과정심의위원회에 학생 위원이 없었던 점을 문제 삼을 것인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후자를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 했습니다. 이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운영체계를 개혁하는 것이 저희의 철학입니다. 또한 학우님들의 생각과 동일 선상에서 사고하고 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단과대 대표자들과 꾸준한 대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체학생대표회의와 같은 대화의 장을 마련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고자 합니다. 비록 당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자 합니다.

Q10-1.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와의 구체적인 협력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제에 대한 탐구는 각자 하더라도 최대한 통일된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고민해보거나 학교에 요구할 사안을 깊이 토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글캠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의 협력은 어려울 거 같으나 만약 글캠 측도 총학이 구성된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Q11.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와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총학생회장단의 가장 큰 장점은 학우들의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우들이 언제 △기쁘고△즐겁고△학교에 애정을 느끼고△화가 나는지를 파악하고 이 중 부정적인 감정을 없앨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총단을 하다보니 초심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게 되는 일인 것 같아 초심을 잃지 않으며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게공간 절실한 학생, 실 곳 없는 학교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엔 학생들이 위한 휴게공간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부족한 휴게공간 및 학생들의 인지 부족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편히 쉴 곳이 없던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기존 공간의 활용도 역시

낮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교 내 △휴게공간 근황△휴게공간 관련 문제△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휴게공간 근황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관해 우리학교 설캠과 글캠 모두 다양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설캠엔 △대학본부 5층 옥상정원스미네르바 콤플렉스(Minerva Complex) 지하 1층 라운지외국어연수평가원 3층 휴게실△잔디광장 등 약 20여 곳의 휴게공간이 존재한다. 특히 중앙도서관 2층에 위치한 ‘휴플레이스(休-Place)’는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설캠의 대표적인 휴게 공간으로 누워서 낮잠을 자거나 쉴 수 있는 소파가 마련돼 있다. 반면 국제학사 건물 2층에 위치한 휴게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 이용 빈도가 떨어지는 등 각 휴게공간 간에도 이용률에 편차가 있다.

글캠의 경우 △국제사회교육원 강의동 2층 휴게실△기숙사 앞 공원△노천극장△명수당△백년관 GPS라운지△인문경상관 라운지 및 여학생 회의실 등 약 28개의 휴게공간이 존재한다. 또한 장판과 담요를 구비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학생 수면실이 △공학관 2층△교양관 HUF5 라운지(Lounge) 1층△자연과학대 2층엔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이 학생들의 실제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하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외대학보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7%가 ‘휴게 공간 부족 문제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문제로 △낮은 접근성△낮고 불편한 시설△악취△휴게공간 부족을 지적하며 학교 측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응답자 중 47.9%가 일주일에 3번 이상 휴게공간을 이용한다고 밝힌 반면 휴게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34.1%)과 매우 불만족(27.1%)을 합쳐 부정적 응답이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휴게공간 관련 문제

현재 휴게공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휴게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에 비해 마련된 공간의 수가 부족하단 것이다. 설캠 학생 A씨는 “휴플레이스를 갈 때마다 자리가 없어 도서관에 앉드려서 잠을 잔다”며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수에 비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명명택 설캠 학술정보팀장은 “현재 해당 공간은 약 33평의 규모로 운영되며 현재 29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며 “해당 공간의 확장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유용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확보된 공간에는 필요한 가구와 시설을 설치할 예산도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도서관의 전체 공간은 100% 활용되고 있어 휴게공간을 위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예산조정팀 또한 “휴게 공간 및 시설 공간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때 학생들과 조율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최대한 마련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면적과 평수가 부족해 올해엔 휴게 공간에 관한 예산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설캠 내 국제학사 2층 휴게실이 학생들 사이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홍보 부족과 지속적인 운영 변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국제학사 휴게 공간과 관련한 논의는 2023년 제57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도약’이 국제학사 시설 및 규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설문조사는 국제학사 시설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제58대 총학 ‘여운’이 해당 공간을 잠정 폐쇄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다시 개방됐지만 이 과정에서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다. 공간이 개방됐단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고 구체적인 이용 방법이나 운영 방

침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병찬(LD 19)씨는 “국제학사에 휴게 공간이 있던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학교에서 관련된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어디서 정보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에 총학은 “중앙집행위원회 복지기획국을 통해 운영의 안정화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번 해 1학기 동안 운영을 통해 사업 프로세스(Process)를 정비하는 과도기를 거친 후 남부 휴게실의 특성에 맞춰 정비 기간과 방법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글캠 역시 휴게 공간 부족 및 시설 미흡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큰 실정이다. 글캠 학생 B씨는 “설캠엔 휴플레이스와 같은 공간이 있지만 글캠엔 여학생 휴게실밖에 없다”며 “그나마 있는 여자 휴게실도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공부하거나 공간 시간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 한데 글캠엔 그런 공간이 전혀 없다”며 빠른 개선을 요청했다. 또 다른 글캠 학생인 C씨는 “교양관 라운지는 이용자가 많지만 냉방과 난방이 잘 되지 않고 도서관 내에도 휴식 공간이 없어 불편하다”고 관리와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신민숙 글캠 정보봉사파트장은 “글캠 도서관은 사실 책을 보관하는 자리조차 부족하다”며 “학교 측도 개축과 개선의 필요성이 느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외대학보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휴게공간 유형은 △개방형 휴게 라운지△수면실△야외 휴식 공간△조용한 학습 공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게공간 개선을 위해 △소음 차단 및 조용한 환경△전자기기 충전 시설△청결 유지 및 위생 관리△편안한 의자 및 소파 제공

등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처럼 학생들이 요구하는 휴게공간 개선 문제는 비단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마주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지난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오전 6시~오후 9시 50분 까지 학생들이 편안하게 휴식하거나 간단한 음식을 섭취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복합휴게공간을 마련했다. 중앙도서관 또한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까운 수면실을 재개방해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경우 휴게 공간에 △계단식 의자△빈백스테라스 등을 설치해 학생들이 작업의 종류와 목적에 맞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공간들은 개인 공간을 제공하며 이른 오전부터 늦은 저녁까지 △영화 상영△카페△휴식 등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강전길 우리학교 건설기획팀장 또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발전시키고자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글캠은 미활용 부지가 존재하기에 이를 위해 현재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며 “계획 수립 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현재 휴게공간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총학과 대학 본부 역시 문제 상황을 인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휴게 공간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고 건강한 대학 생활을 위한 시설로 변모하기 위해선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실질적인 휴게공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학교와 학생들이 협력해 보다 나은 휴게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

최소윤 기자 09soyoon@hufs.ac.kr

디지털융합인재를 양성하는 GMC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특별·일반 전형)

1. 2025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 전형 일정	일반 전형	장소
원서접수	2025.3.24.(월) ~ 4.14.(월)	2025.4.28.(월) ~ 5.14.(수)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서류제출	2025.3.24.(월) ~ 4.14.(월)	2025.4.28.(월) ~ 5.14.(수)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대학원 111호)
면접시간 공지	2025.4.23.(수) 15:00	2025.5.21.(수) 15:00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면접전형	2025.4.26.(토) 10:00	2025.5.24.(토) 10:00	화상면접
합격자발표	2025.5.9.(금) 15:00	2025.6.5.(목) 15:00	홈페이지에서 확인
합격자등록	2025.5.12.(월) ~ 5.14.(수)	2025.6.9.(월) ~ 6.11.(수)	우리은행 전국 지점 가상계좌 납부가능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미디어 비즈니스 - 디지털 커머스
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다. 엔터테인먼트 K-컬처
라. 디지털미디어융합(산학) - 온라인 과정

3.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 화상면접(후후 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sgmc.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282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5.03.31.(월) ~ 4.11.(금)	2025.04.28.(월) ~ 5.09.(금)
면접전형	2025.04.26.(토) 10:00	2025.05.24.(토) 10:00
합격자 발표	2025.05.09.(금) 16:00 예정	2025.06.05.(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5.05.12.(월) ~ 5.16.(금)	2025.06.09.(월) ~ 6.13.(금)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스페인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유아교육 •수학교육 •상담심리(전문상담교사 2급)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영어교육 •독서논술교육 •문화콘텐츠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외국대학, 독학사는 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지원전공의 관련학과(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점 이상 이수자

◆ 우대사항

가.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나. 교원자격증 취득자는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유웨이어플라이 Uway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입 학 문 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2173-2419 FAX 02-2173-3358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홈페이지 : gse.hufs.ac.kr
○ 이 메 일 : hufsgse@hufs.ac.kr



베트남

<전쟁의 슬픔>

- 우리에게 고귀한 슬픔이 필요하다 -



'전쟁의 슬픔'은 베트남 전쟁을 다룬 소설 중 가장 훌륭한 문학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베트남 땅에서 베트남 사람이 직접 겪은 전쟁을 사실적이면서도 수사적으로 풀어낸 소설이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단순히 전쟁 문학을 넘어 △동료애△연인 간의 사랑△전후 세대에 대한 성찰을 끌어낸다. 나아가 작가는 주인공과 글쓰기를 연결해 베트남 전쟁의 실상을 담담히 묘사한다.

주인공 '끼엔(Kiên)'은 열일곱의 어린 나이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다. 그는 평생의 사랑을 맹세한 연인 '프엉(Phuong)'을 뒤로한 채 북베트남의 진영에서 남베트남으로 향하는 열차에 오른다. '끼엔'의 아버지는 화가였고 '프엉'을 둘러싼 가족들 역시 전쟁의 이념과 무관한 자들이었으나 끼엔은 그들과 다르게 전쟁 속에서 살아간다. 그는 베트남 전쟁 동안 곳곳을 다니며 수많은 동료를 잃고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린다. 동시에 그는 살아남기 위해 무수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한다. 8년간의 전쟁 이후 '끼엔'은 기적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프엉'은 이미 다른 남자와 함께였다. 그러나 그녀는 '끼엔'을 마주한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결국 고향을 떠나고 만다. 이후 '끼엔'은 전쟁에서 겪었던 경험을 소설로 써야 한단 의무감에 사로잡혀 글을 통해 전쟁의 순간들을 해후한다.

'전쟁의 슬픔'은 시간순으로 전개되는 전형적인 서사 구조를 따르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주인공이 마흔 살에 이르기까지 겪은 사건들이 군데군데 배치된 수필 형식의 소설이다. 작가는 주인공의 입을 빌려 전쟁에서 겪었던 여러 일화를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듯 풀어낸다. 작가는 '베트남 전쟁이 막 끝나고도 군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물건들을 마구 부수고 있었다'고 전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묘사한다. '끼엔'은 전쟁이 끝난 지 15년이 지난 후에도 선풍기 소리를 헬기 프로펠러 소리로 착각할 만큼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그의 삶엔 '전쟁이 일어나기 전 프엉과의 사랑'과 '전쟁이 끝난 후 프엉에 대한 사랑' 단 두 개밖에 없었다. 작가는 전쟁의 참혹함을 담담히 그려내며 전쟁이 끝나버린 비극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다.

'끼엔'은 자신의 소설 속에 전쟁과 사랑을 담아내며 전쟁의 슬픔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에게 슬픔이란 단지 전쟁이 남긴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고귀함이었다. 그는 작품 속 소설을 통해 슬픔을 전쟁 세대만의 몫이 아닌 전후 세대와 함께 공유한다. 그가 잃은 △동료와의 우정△연인과의 사랑△평범한 일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전쟁 전 '끼엔'이 잃어버린 평화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와 다를 바 없음을 잊어선 안 된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전쟁이 세계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우리의 고귀한 슬픔을 기억해야 한다.

김은희 기자 10kimeunhui@hufs.ac.kr

영국에서의 짧지만 귀중한 한 달

나는 지난 1월에 한 달간 우리학교 동계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 셰필드대학교(University of Sheffield)에 다녀왔다. 이전부터 해외에서 수학하고 싶단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지만 한 학기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 해외 수학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 지난해 10월 즈음 해당 프로그램 공고를 보게 됐고

나라 세상에 대한 견문을 더욱 넓힐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기 위해선 80%의 출석률만 충족하면 된다. 그래서 나는 출석률을 지키는 선에서 매주 영국 근교나 다른 유럽 내 국가로 여행을 다녔다. △첫째 주엔 영국의 요크(York)와 맨체스터(Manchester)△둘째 주엔 스페인(Spain)과 리버풀(Liverpool)△셋째

주엔 추억을 쌓았다.

영국에 있는 동안 마냥 즐거운 기억만 있진 않았다.△생각보다 높았던 물가△원-파운드(Pound) 환율의 급상승으로 인해 높은 학비△큰 비율의 서비스(Service) 요금을 필수로 받는 식당과 카페로 인해 금전적 지출이 컸다. 여행을 갈 땐 기차 회사 측의 실수로 인해 기차 비용을 정가보다 비싸게 내기도 했고 이를



이러한 불안함을 단기 해외연수를 통해 해소해 보자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됐다.

셰필드(Sheffield)는 마을 전체가 하나의 캠퍼스라고 할 정도로 마을 곳곳에 대학 건물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나는 캠퍼스 내에 위치한 ELTC(English Language Teaching Centre)란 어학당에서 공부했다. 첫 오리엔테이션 날에 케임브리지(Cambridge) 레벨 테스트를 보고 나서 정해진 레벨에 따라 분반된다. 우리 반엔 한국인뿐만 △일본△중국△프랑스(France)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 다양한 연령대를 갖고 있었다. 정규 수업 이외에도 방과 후 수업을 따로 신청할 수 있었다. 나는 언어 교환 수업을 신청했는데 페루(Peru) 사람을 만나게 돼서 내 전공 언어인 스페인어로 소통할 기회도 있었다. 이처럼 낯선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를 나누며 언어 실력뿐만 아

주엔 벨기에(Belgium)와 리즈(Leeds)△넷째 주엔 런던(London)을 여행했다. 셰필드 대학교에선 여행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공공요금도 내가 수학하러 온 시기에 맨체스터 현장 체험이 있어 무료로 맨체스터를 갈 수도 있었다. 플랫폼메이트들(Flat Mates)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고 혼자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며 소

한불반야야 하는 상황에서 느린 일 처리로 인해 울화통이 터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만약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난 고민의 여지 없이 신청할 것이다.

그만큼 영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해외 생활에 대한 나의 불안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내가 해외 생활에 잘 맞는 사람이란 걸 깨닫게 해줬다. 비록 한 달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국내에선 절대 경험하지 못할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추후 교환학생에 지원해보자는 의지 또한 다지게 됐다. 만일 나처럼 해외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망설이는 학우가 있다면 한 달이라도 좋으니 이런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주저 없이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장휘영(통번역·스페인어 23)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5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5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Table with 3 columns: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Rows include 원서접수, 고사장 발표,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예치금 납부.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족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 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지원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작성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적부(외국인 학생은 해당, 공증 필요)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8) 재직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한국 영사의 공증서(확인)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 1) 자격증 : 초·중·고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가산점 부여)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연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지하철 고사점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 가. 성적 우수자 3학기 졸업 가능(별도의 조기졸업사 진행)
나. 3가지 졸업 트랙 운영
* 논문(24학점 이수), 연구보고서(28학점 이수), 추가학점(32학점 이수)
다. 장학금 : 성적우수/우수외국인/동문/근로장학금 등 장학 혜택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의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 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 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의 요람 국제지역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모집

1. 국제지역대학원 모집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모집 전형 일정

Table with 3 columns: 구분, 1차 모집, 2차 모집. Rows include 원서작성, 전형일, 합격자 발표, 온라인 입학설명회(예정).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온라인 입학설명회 세부 안내는 추후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특징

- 가. 다양한 장학금 제도
나. 유엔평화대학 이종학위 프로그램 운영(국제학, 한국학과, 중남미학과, 유럽연합학과)
다. 3+1제도 시행(선발자에 한하여 재학 중 1학기는 해외에서 학점취득)
라. 폭넓은 다양한 지역학 국제학 과목 개설
마. 졸업 후 많은 동문들이 국제기구, 공공기관 국제협력실, 대사관, 국제 연구기관 등에서 국제지역 전문가로 활약 중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2.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모집

◎ 모집: 석사학위 과정(4학기)

Table with 2 columns: 학과(전공), 학위. Rows include 국제지역전략학과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and 국제지역학사, 경제학석사.

◎ 모집일정

Table with 3 columns: 구분, 1차 모집, 2차 모집. Rows include 원서작성, 전형일, 합격자 발표, 온라인 입학설명회(예정).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특징

-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출신 교수진 초빙
나. KOTRA의 통상전략 및 지역통상 현안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지역대학원의 고유가치인 지역학 접목
다. 통상환경 + 실무이론 + 지역별 심화 연구를 아우르는 실무 통상 전략기 양성(커리어개발 방향은 추후 변경 가능)
라. 졸업 시 학위기와 함께 별도로 KOTRA 사장 명의의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수료증 수여
마. KOTRA 현지 무역관 연계 단기 현장학습 추진
바. GBC(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민간 1급) 자격증 연계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국내 외국인 유학생 20만 시대... 생계를 위해 불법 취업으로 내몰리는 현실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만 9,000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유학생 불법 취업 적발 건수는 △21년 407건△22년 948건△23년 1,306건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유학 생활을 이어 나가기 위해선 근로를 통한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복잡한 근로 신

청 절차 △비자 문제 △한국어 구사 능력 등 각종 제약 아래 많은 유학생들이 불법 근로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본 기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현황△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근로 배경△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외국인 유학생 현황

외국인 유학생이란 우리나라에서 유학 또는 연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만 9,000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에 비해 약 2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1년 152,281명△22년 166,892명△23년 181,842명으로 전반적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학령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 2022년 외국인 유학생을 2027년까지 30만 명으로 늘려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는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 (StudyKorea 300K Project)'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대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역 경제 활성화△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등을 기대효과로 삼았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는 만큼 외국인 유학생 불법 취업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이들은 유학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지만 정작 생활비 및 등록금 충당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충북 여성재단 정유리 연구원(이하 정 연구원)의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및 일상생활 어려움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설문조사에 응한 경상북도 경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201명 중 28.9%(58명)는 한국 생활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다' 또는 '힘들다'고 답했으며 53.7%(108명)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이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이 교내 근로 활동이나 문화 관련 강연 등의 형태로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근로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업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자는 크게 유학 비자인 D2 비자와 일반 연수 비자인 D4 비자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유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및 취업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엔 아르바이트가 허용된다. 이에 관해 지난 2002년부터 입국 관리소를 통해 취업 허가를 신청하면 한국어 능력과 대학 유형에 따라 최대 주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됐다. 즉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에 한해 시간제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유학생 중 정작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

은 유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복잡한 근로 허가 절차 및 엄격한 제한 조건 등으로 인해 근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성적표△졸석 증명서△표준 근로계약서 등 7가지 서류를 내고 미리 신고해야 한다. 한국 문화와 한국어가 서툰 유학생들이 이 같은 모든 서류를



▲사진 출처 (이투데이)

일일이 다 준비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근로 가능한 업종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는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업종 분야엔 △일반 사무보조△일반 통번역△음식업 보조 등이 있다. 이때 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 신체 검사서를 제출한 경우 △놀이보조원△영어 캠프△영어 키즈카페(Kids Cafe)에서 안전보조원 등의 활동도 가능하다. 또한 관광 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도 가능하며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이하 토픽) 4급 혹은 KIIP 4단계 이수 이상인 경우 제조업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실령 이 같은 업종을 구했다고 해도 한국어 능력에 따라 근로 시간이 상이해 생활에 큰 도움을 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어 능력을 갖췄을 경우 최대 근로 허용 시간은 20시간이지만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 근로 시간이 10시간으로 제한된다. 또한 이 경우 월수입은 최저시급 기준 39만 4천400원에 그친다. 즉 토픽 3급을 취득하지 못하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도 일주일 내내 10시간만 일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불법 근로로 적발된 외국인 유학생들은 △강제 퇴거 및 출국 명령△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범칙

금 납부 △1년간 시간제 취업 제한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정해진 시간만 일해서 사실상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주로 외국인 유학생을 불법 고용하는 자영업자들 역시 불법임을 알면서도 인건비 등의 문제로 은밀하게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 역시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인건비를 감당

제약 때문에 유학생들이 불법에 내몰린다면 제도를 현실성 있게 바꿔야 한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취업 시간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유학생의 경우 학업이 우선이란 제도 취지에 공감하지만 불법 고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와 같이 불법 고용을 방지할 경우 유학생들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 등 여러 부당 노동행위에 더 많이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부푼 기대를 안고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시작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불법 취업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불법 취업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이 유학생 취업 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유학생들이 합법적으로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한영빈 기자 09youngbin@hufs.ac.kr

한국의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전형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5. 3. 20.(목) 09:00 ~ 3. 26.(수) 16:00	2025. 4. 24.(목) 09:00 ~ 4. 30.(수) 16:00
면접전형	2025. 4. 19.(토) 10:00 부터	2025. 5. 31.(토) 10:00 부터

※ 접수방법 : ①온라인 원서접수→②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지원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③지원자 유의사항 및 면접장소 확인→④구술(면접)시험 응시→⑤합격자 확인
※ 면접전형 일시는 학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자격

1. 특별전형

-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8월(일본 소재 대학은 9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로 학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9(6.0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8월(일본 소재 대학은 9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로 석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4.0(5.0만점), 3.3(4.3만점), 3.0(4.0만점), 90(100점만점) 이상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가능

2. 일반전형

-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8월(일본 소재 대학은 9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8월(일본 소재 대학은 9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가능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모집과정 및 학과 /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 : <http://gra.hufs.ac.kr>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우편제출

-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대학원 1층 102호) 대학원 입시담당자 앞

◆입시문의

- 02173-2397



‘직장 내 괴롭힘’ 끊어내기 위해선

최근 기상캐스터 고(故) 오오이나 씨의 사망 사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 법의 한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실효성 부족과

미흡한 대응이 계속해서 지적된다. △직장 내 괴롭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직장 내 괴롭힘 현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지칭한다.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직장인 3명 중 1명(35.9%)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괴롭힘의 유형은 △따돌림·차별△모욕과 명예훼손△부당지시△업무 외 강요△폭행·폭언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한 괴롭힘은 정규직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의 ‘괴롭힘 심각’ 응답 비율은 정규직보다 8.1%p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용관계가 없는 프리랜서(Freelancer)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자 중 54%는 괴롭힘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피해자 중 22.8%는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노동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직장인 자살사유 중 1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만큼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은 괴롭힘을 겪으면서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회사나 노동조합에 신고한 사람은 12.8%이며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한 사람은 5%에 불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문제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시행된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지 않는 이유론 법적 한계와 미흡한 제도적 대응이 지적된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보호 대상을 제한한다는 한계가 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돼있다.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박현정 전라남도청 여성인권보호관은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인 약 455만 명이다”며 “전체

노동자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호한 법 규정 역시 문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법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 수위를 요구하는지 기준이 모호한 것이다. 그렇기에 허위·과장 신고가 늘어나며 행정력이 낭비되고 ‘진짜 피해자’는 되려 보호받지 못하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입이 자 국민회의 의원은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4만 3000여 건 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800건이지만 실제 기소는 350건 정도에 불과하다”며 “반면 ‘법 위반 없음’이 1만 2000여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신고가 접수된 단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 법 위반’으로 판정된 비율은 12.4%에 불과하여 8건 중 1건만 행정 조치가 내려진 셈이다.

다음으로 신고 이후 괴롭힘 대처 과정보다 문제다. 과거엔 사용자의 괴롭힘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변경된 후엔 사용자가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자체 조사를 병행하는 지침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자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조사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를 만든다. 이러한 자체조사는 증거 인멸과 목격자 회유 가능성을 높여 피해자의 보호를 더욱 어렵게 한다. 실제로 SBS 뉴스 인터뷰에 따르면 한 익명의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지침은 근로자의 패를 공개하는 상황이 되며 사용자가 어디까지 방어를 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실제로 사용자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지침 변경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고용노동부가 사건에 직접 적용하는 지침을 예고 없이 변경하고 이를 별도로 고지도 하지 않기에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조차 정확한 법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는 예측할 수 없는 절차 속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미흡한 처벌과 낮은 실효성이 문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신고당한 사업장 사례가 총 884건이며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5건으로 전체의 6.2%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괴롭힘 피해 신고를 받은 뒤 이를 방지한 사업장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조치 의무 위반’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사실상 0건으로 전무하다. 또한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도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장 80%가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했던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신고 사례 총 1360건 중 20.1% 수준인 274건만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는 2차 피해 역시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현재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규직 뿐만 아니라 파견 근로자 등 현재 법령에선 소외된 이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MBN 뉴스 인터뷰에 따르면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 연구소 교수는 “비정규직에게도 적용되는 조항이고 직원 여부를 따지지 말고 그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원청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호한 법적 기준을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괴롭힘이란 것 자체가 마땅한 기준은 없지만 지속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 최대한 모호성을 줄여야 한다 의견이 존재한다. 실제로 ZUM 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속성이나 반복성과 같은 기준을 두는 것이 옳지만 관련 신고의 문턱을 높일 수도 있기에 추가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조항 자체가 모호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월간노동법률 기사에 따르면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서 연구위원)은 “‘우위성’과 ‘업무상 적정 범위’라는 표현이 오히려 오해와 혼란을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서 연구위원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상식적인 범위’로 수정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법 개정 및 법의 투명성 역시 확보돼야 한다. 사용자가 자신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닌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SBS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최정규 변호사는 “적어도 노동청에 신고한 사건 혹은 피해자가 사용자의 조사가 객관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면 기존 지침대로 노동부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며 “지침을 비공개로 하는 것도 문제기에 미리 공시하고 의견을 받아 법의 취지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벨기에(Belgium)의 경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대응할 시 반드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방지도연사’를 의무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활용되는 방지도연사의 운용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지만 방지도연사는 관련법에 따라 독립적인 위치에서 사건을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내린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처벌 규정으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호주에선 직장 내 괴롭힘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해 자해 자살 충동을 초래한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르웨이(Norway)의 경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면 이를 위법행위로 간주해 최대 2년의 징역 혹은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같은 처벌규정이 생긴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은 과거부터 수직적 상명하복의 문화에 익숙해 있고 여전히 일부 직장에선 이러한 분위기가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중부일보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형재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하나의 단순한 사건이 아닌 조직문화 전체에서 시작되므로 법보단 문화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문화나 분위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제2의 집’과도 같다. 이 공간이 견디며 버텨야 하는 전장이 돼선 안된다.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과 문화를 끝내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다.

강예원 기자 08yewon@hufs.ac.kr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탄핵 심판 일정 영향 주나

이번 달 8일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8일 서울 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발송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던 판단을 수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 즉시항고란 불복 방법의 위험성이 질기에 고민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이 불복 시 위헌 논란이란 현실적 부담이 작용할 수 있던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구치소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윤 대통령 석방에 △경북공광문화문△중로3가△한강진역 등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사회 ‘의대 증원 철회’, 의대생들 복귀하나

이번 달 7일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철회 방침에 대해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의·정 갈등 수습을 위해 내놓은 조치지만 ‘의료 개혁 후퇴’란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대 증원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이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회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의료계 측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제시한 내용으로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란

기존의 입장은 그대로다”며 의대 정원 정책 결정자에게 문책이 동반된 사과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의 취진 이해하지만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관련 법률안이 통과돼 의·정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 정원 동결 제안을 철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경제 지방 주택 미분양 비율 80% 넘어...정부 대책은

약성 미분양 물량의 80% 이상이 지방에 몰리며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지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2624호로 이중 약성 미분양은 2만 2872호로 집계됐다. 특히 11년 3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로 전체 80.6%인 1만 8426호가 지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 2,032호△경북 2,214호△대구 3,075호△부산 2,268호△전남 2,445호로

나타났다. 평택의 경우 지난해 1월까지 미분양 가구가 361호에 불과했으나 올해 1월 6,438호로 18배 급증했다.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이 이어진 가운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 주택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 물량 3,000호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부동산 심리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국제 화웨이 AI 칩 200만 개 확보, 미국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비축량’

미국 싱크탱크 전략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이하 CSIS)는 지난 9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Huawei)’가 페이퍼컴퍼니(PaperCompany)를 통해 미국 제재를 우회하고 대만 TSMC의 인공지능 반도체 200만 개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020년부터 미국 기술과 장비를 사용해 생산된 반도체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게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고 있었다. CSI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가 확보한 200만

개의 AI 반도체가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비축량으로 평가됐다. 화웨이는 지난해 8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 HBM 유입 통제 계획’의 조치가 시행된 뒤 그해 12월까지 삼성전자를 통해 AI 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미국·중국 간 AI 기술 격차는 1~2년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며 세계 반도체 시장에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국제 무역 질서 흔들리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이하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중국△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국제 무역 전쟁이 전면적으로 치달고 있다. 이번 해 1월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목표로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 이는 대상국의 보복 관세 조치로 이어지며 국제 무역의 판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남수진 우리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남수진 우리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Q1.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관세 정책의 주요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맹국을 포함한 다수의 교역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적인 조치로 꼽힙니다.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된 상태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엔 중국산 제품의 미국 내 유입을 더욱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Platform)들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은 소비자가 해외 직구를 통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기존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수입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800달러 미만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이미 시행된 주요 조치 중 하나이며 다른 교역국으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조치를 넘어 정치적·외교적 전략의 일환으로도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 무역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로 평가됩니다.

Q1-1.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실제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세수 증가△자국 산업 보호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영향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세수 증가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관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총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큼니다. 수입이 줄어들면 관세 관세 대상 자체가 축소되므로 결국 세수 증가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결과 초기에는 대중국 무역적자가 감소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역 흐름이 다른 국가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인 무역적자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2기 행정부에선 중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유럽△캐나다 등 전통적인 동맹국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어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 미국 내 제조업과 특정 산업이 단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혼란△기업 불확실성 증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니다. 특히 이러한 부작용은 경제 전반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관세 부담이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가 오를 수 있고 이러

한 이유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보호무역이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Q2.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중국△캐나다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배경과 주요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트럼프 행정부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했고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컸습니다. 또한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제조업 종사자들을 주요 지지층으로 삼아 보호 무역을 일자리 보호와 경제 회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요. 이웃 국가들에겐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닌 불법 이민과 펜타닐(Fentanyl) 밀매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다가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외교 문제를 미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압력 수단을 가지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Q3.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가 주요 교역국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현재 주요 교역국들이 보복 관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멕시코△중국△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들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 국가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을 많이 수입하는데 특히 대두 같은 농산물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이에 대응해 캐나다와 멕시코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캐나다는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및 여러 품목들에 대해 보복 관세를 도입했고 멕시코도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니 유럽연합은 미국산 △농산물△오토바이△주류 같은 품목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무역 다변화 전략도 나오고 있어요.

Q4.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국제 무역 질서와 국제 통상 규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국제 무역 질서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항소심 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현재는 1심 패널 결정만 가능할 뿐 강제력 있는 분쟁 해결 기구의 결정 채택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와 같이 WTO가 제대

로 기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국은 실익을 얻기 위해 양자 협상으로 돌고구를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선 특히 다자간 협정보단 힘의 논리에 기반한 개별 협상인 양자 협상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결국 국제 무역 질서를 악화시키고 강대국 중심의 협상 구조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Q5. 미국의 관세 조치가 유럽의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유럽연합(EU)의 이에 대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유럽은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고 △독일△이탈리아△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산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유럽 자동차 업계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산 와인에 대해서 200% 관세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의 통상 이슈가 단순히 무역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단 점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대표적인 게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입니다. EU는 빅테크(Big Tech)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이런 규제자가국 기업에 불리한 정책이라 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관세가 이런 기업 규제와 연계되어 협상 카드로 사용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Q6.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CHIPS Act) 폐지를 주장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및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주장의 배경엔 “관세를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데 굳이 보조금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논리가 전제돼 있습니다. 현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법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 내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법이 폐지된다면 기업들이 기대했던 지원이 사라지면서 투자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반도체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당장 기업들이 미국 내 사업을 철수하거나 계획을 전면 수정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Q7.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미국은 다수의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대응 전략을 다각도

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관세 정책을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이 발표된 대로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관세율을 발표한 후 유예 기간을 두거나 협상 과정에서 조정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와의 협상에서도 철강·알루미늄(Aluminium) 관세를 5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시 25%로 조정하는 등 유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하면서 협상력을 높여 관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은 무역을 넘어서 △국방비 부담 문제△디지털 규제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얽혀서 복합적인 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통상 부처를 넘어서 범정부적 총력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기업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Q8. 향후 미국의 관세 정책 방향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나요?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과 우호국에 대한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전통적인 미국의 우호국이지만 강한 관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집권하는 동안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얼마나 잃을 것이냐’입니다. 신뢰가 크게 훼손된다면 권력이 다시 바뀌더라도 이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단순한 압박 카드인지 아니면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철학에 따른 신념인지에 따라 향후 국제 경제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무역을 하는 국가끼리 서로 걸거나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반도체법(CHIPS Act): 2022년 제정된 법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한 쪽의 이익이 반드시 다른 쪽의 손실로 이어지는 상황



뒷담 까일 기자

외대학보에서 처음 면접 본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나는 '사람의 이야기에 가까이 가는 기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내가 선망하던 기자는 '슬픈 세상에서 기쁜 말'을 전하는 정혜윤 기자와 논리적인 문장으로 소설 같은 현실을 그리는 장강명 기자였다. 그러나 아침 차가 기화로 제안했던 첫 기사부터 우여곡절이 끊이지 않았다. 사전 취재 허락을 받아야 한 단점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 제안서 제출부터 차질을 빚었다. 준비한 질문지에도 구조적 오류가 많아 충분한 분량의 내용이 확보되지 않았다. 결국 준비했던 첫 기사는 준기획으로 조정됐고 첫 번째 회의 다음 날부터 후속보도를 함께 준비했다. 기사 하나를 쓰는 과정이 이토록 복잡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나는 급세 의기소침해졌다. 후속보도 역시 마감일 전에 관련 취재원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사전 취재 허락 문제로 한 차례 난항을 겪은 터라 다시 요청하는 것이 두려웠다. 결국 한정된 정보로 기사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사람의 도움에 힘입어 겨우 기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완성도가 낮은 기사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내 문장에 전달력이 부족하던 사실도 깨달았다. 평소 글 쓰기를 좋아하기만 했지 다수의 독자 눈높이에 맞춘다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보 전달에만 치중할 경우 단편적 나열에 그쳤고 나름의 해설을 쓰기 위해선 사건이 개입될 수 있던 우려 속에서 항상 경계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해야 했다.

첫 번째 회의가 끝난 이후 다시 준기획·후속보도 작성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하고 보도를 맡았다. '다른 사람이면 흔쾌히 했을 일을 나로서 못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 때문에 모두에게 미안해졌다. 잘하고 싶고 괜찮은 사람이고 싶단 욕심이 다른 학보사 구성원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다.

첫 번째 마감일 끝난 뒤 끊임없이 '좋은 기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그 좋은 기사를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기사는 너무 높은 곳에 있었고 나는 한없이 낮은 곳에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끊임없이 부딪히고 깨지는 일밖에 없었다. 외대학보의 천방지축이 되고 싶지 않다. 처음부터 끝까지 걱정 없이 잘하는 사람이고 싶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도망치지 않고 노력하기'뿐이다. 이번엔 자신 없던 핑계로 머뭇머뭇 시간도 없이 도망쳐버렸지만 앞으로 도망치고 싶지 않다.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다. 성장하려면 끝없이 부딪히고 깨질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도전하며 배우고 싶다.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행운이 오리라 믿는다.

어떤 일을 하는 데 버티고 있다면 첫 번째로 "그 일이 나를 성장시키는지 점검하라"고 묻고 두 번째로 "그 성장통이 내가 원하는 미래를 가져다주는지 점검하라"고 한다. 나는 외대학보 활동을 통해 사람의 이야기에 가까이 가도록 성장하고 싶고 이 성장을 바탕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글을 쓰고 싶다. 글 위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 나는 기자이기 이전에 글 쓰는 자이고 싶고 글 쓰는 자이기 이전에 사람이고 싶다. 이 과정에서 난관이 많더라도 내가 나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도전하고 또 도전할 것이다. 설령 '뒷담 까일 기자'가 되더라도 말이다.



김은혜 기자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책 '사랑하는 잠자'을 읽고 이 세계를 배우는 방법]

인간은 사랑을 통해 이 세계를 학습한다. 무라카미 하루키(村上 春樹)의 '사랑하는 잠자'는 별레에서 인간으로 변한 주인공인 잠자가 사랑을 원동력 삼아 세계를 배워나가는 모습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엿본다.

침대 위에서 눈을 뜬 잠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바닥에 발을 딛고 옷을 걸치고 문을 열기까지 모든 것이 어색하지만 했다. 왜 자신이 해바라기나 물고기가 아닌 인간으로 태어났는지 의문을 품는다. 밀려온 허기에 음식 냄새를 따라 계단을 내려간다. 본능과 욕구에 충실한 모습은 아직 잠자가 인간의 모습을 한 별레에 불과하던 사실을 보여준다.

마치 짐승처럼 허겁지겁 배를 채우고 있는 잠자의 집에 등이 굽은 여자가 찾아온다. 열쇠수리공인 그녀는 고장 난 자물쇠를 수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다. 그녀는 등이 굽어있는 탓에 걸을 때마다 굽실거리며 몸을 크게 뒤눕었다. 하지만 이제 막 인간이 된 잠자는 그 모습이 평범하지 않단 걸 인식하지 못한다. 네 발로 거다니는 별레였던 그의 시선에선 오히려 자연스런 모습이었는지 모른다. 외모를 신경 쓰지 않는 그의 모습은 현대사회의 외모지상주의를 꼬집는 듯하다. 그녀가 자물쇠를 수리하는 동안 둘은 대화를 나눈다. △속웃△신사자물쇠△탱크까지 잠자가 알지 못하는 단어들만 마구 튀어온다. 하지만 영인 단어들 속에서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잠자가 사랑에 빠졌단 것이다.

잠자는 그녀에게 다시 만나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물쇠를 당장 수리할 수 없다며 자신의 가방에 자물쇠를 챙긴다. 그에게 자물쇠는 금기와도 같았다. 자물쇠가 고

장 나서 열린 문을 통해 비로소 세상을 마주하고 그녀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잠자의 고장 난 제어장치를 들고 다음을 기억하며 집을 나선다. 그녀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잠자는 "재들을 조심해요"라고 말한다. 막 별레에서 인간이 된 그가 건낼 수 있는 진심 어린 걱정이자 사랑의 표현이다. 이제 잠자는 자신이 물고기나 해바라기가 아닌 인간이란 사실에 기뻐한다. 이 세계에는 배워야 할 것이 너무도 많지만 인간으로서 마음속 온기를 느낄 수 있단 사실에 감사한다. 그리고 그는 옷을 올바르게 입는 방법부터 배우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방으로 향한다.

인간은 사랑을 통해 세계를 학습한다. 옷 입는 방법을 몰라 천을 몸에 두르고 있던 잠자는 그녀를 통해 옷을 올바르게 입는 방법을 배울 결심을 한다. 나아가 이 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존재들에 대한 호기심을 품는다. 사랑이 그에게 배움의 동기가 된 것이다. 소설 말미에 잠자는 "온 세상의 여러 계단을 돌이켜 나란히 오르내리고 싶다"고 말한다. 그에게 계단은 두려운 존재였다. 처음 계단을 내려갈 때 그는 물고기나 해바라기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부자연스럽고 위험한 계단이란 곳에 왜 자신의 몸을 던져야 하는지 불만을 품었다. 그러나 그녀와 함께 계단을 오르내리고 싶단 잠자의 다짐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다. 사랑이란 모든 걸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사랑은 부자연스럽고 위험한 이 세계에 우리의 몸을 던질 때 손을 잡아줄 것이다.

박지연 기자 10jyeon@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를 보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한다는 것

영화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桐島, 部活やめるってよ)'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배우부 에이스인 '키리시마(桐島)'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갑자기 사라지면서 벌어지는 며칠간의 이야기를 그린다. 하지만 정작 영화는 키리시마의 시점을 보여주지 않고 그는 스크린 타임 내내 등장조차 하지 않는다. 카메라는 키리시마의 부재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에게 집중하며 그가 사라진 자리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관계와 감정을 섬세하게 묘사한다. △야구부△영화부△취주악부 등 다양한 동아리에 속한 학생들의 시선을 통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청춘을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낸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다. 영화엔 실력이 부족하던 이유로 혹은 타인에게 부끄러웠던 이유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그만두는 학생들이 등장한다. 반면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묵묵히 당장의 즐거운 일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 대비 속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진심을 다해 왔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한다. 어떤 일은 단순한 취미로 끝나기도 하고 어떤 일은 힘든 노력이 수반되는 목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즐거움이란 감정은 종종 뒷전으로 밀려난다. 잘하지 못하면 창피한 일이 되고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성과가 없으면 의미 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놓치곤 한다. 영화 속 인물들도 비슷한 고민을 한다. 좋아하는 일이지만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한다. 영화의 후반

부에 '히로키(宏樹)'는 '마에다(前田)'에게 왜 영화를 찍냐고 묻는다. 마에다는 영화감독이 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주 가끔씩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랑 지금 우리가 찍는 영화가 연결됐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 정말 아주 가끔이지만 그게 그냥 좋으니까"라고 답한다. 그 말을 듣고 히로키는 울음을 터뜨린다.

영화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일인가 끝까지 해야 한단 단순한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지속하는 것의 어려움과 가치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야구를 그만둔 '히로키'처럼 좋아하는 일을 지속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우리 또한 꿈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한다. 그러나 누군가의 선택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각자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서로 다르고 한 개인의 인생에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기에 단정 지을 순 없다. 당장은 가장 하고 싶은 일도 가까운 미래에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지 모르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인공들은 현실과 타협하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각자의 방식으로 나아간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계속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영화 속 등장인물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 좋아하는 일이 있단 것이 부러웠다.

영화가 끝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할 수 있단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됐다.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리고 매 순간을 좋아하는 일로 채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청춘을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방식이 아닐까?

윤고는 기자 10goeun@hufs.ac.kr

1100호 학보를 읽고

김상연(서양어 · 포르투갈어 21)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어김없이 돌아온 봄, 곳곳이 이어지는 학보의 전통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왔다. 세상은 다소 어수선하지만 그럼에도 캠퍼스는 열정을 가득 품은 학생들로 북적인다. 양캠프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부족한 학위부 수량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서울캠퍼스의 경우 학위부를 추가로 제작해 수량을 충당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여전히 모든 학생을 만족시키기엔 부족한 실정이다. 기사에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위부 구매를 위한 졸업생의 모금 활동을 제시했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검토해야 한다. 우리학교는 다른 대학교에 비해 동문의 기부금이 부족한 편이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동문의 모금 활동에 기대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부 업체와의 학위부 대여 사업 추진은 부족한 수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다만 외부 업체와 연계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 문제에 관한 내용을 기사에서 다루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4면에선 전국적으로 이뤄진 등록금 인상 문제를 다뤘다. 오랜 기간 등록금을 동결한 우리학교는 이번 해부터 등록금을 5% 인상했다.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황과 더불어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우리학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 공감한다. 다만 등록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충분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문제다. 또한 재정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의 다각화 등 등록금 인상뿐만이 아닌 근본적인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법인의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기사는 우리학교 등록금 인상의 전반적인 배경과 함께 절차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까지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정작 등록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5면에선 우리학교 학생회 학생 복지 제휴 사업에 대해 다뤘다. 현재 총학과 단과대 학생회는 △교육△식당△의료 등의 분야에서 제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흡한 홍보로 인해 제휴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았다. 또한 제휴 사업을 알고 있더라도 그 혜택이 적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었다. 저조한 이용률은 추후 더 많은 사업체와의 협력에 난관을 유발하기에 학생들이 제휴 사업을 인지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언제나 그랬지만 특히 이번 외대학보 1100호는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사안들을 주로 다뤘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취재하며 자칫 학교 구성원이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에 목소리를 내준 외대학보 기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에 힘입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학교가 되길 희망한다.

1100호 학보를 읽고

장휘영(통번역 · 스페인어 23)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고민이라는 한 줄기 따뜻한 빛

개강 날 캠퍼스에 눈보라가 몰아친 게 불과 얼마 전인 데 벌써 따스한 봄바람이 캠퍼스를 감싸고 있다. 오랜 만에 학생들로 가득 찬 캠퍼스는 활기를 띠지만 개강과 함께 학생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번 1100호에선 △등록금 인상△제휴 사업 문제△학생 자치활동△최저임금 문제 등을 다루며 외대학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학내의 사안들을 조명하고 있다.

4면에선 얼마 전에 인상이 결정된 등록금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십 수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를 깨고 이번 학기부터 등록금이 5% 인상됐다. 학생으로서 등록금 인상이 달갑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서 소개된 학교 측의 사정을 읽으며 인상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있었다. 물론 등록금 인상에 따른 금액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5면에선 제휴 사업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학생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제휴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크게 점검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제갈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휴 혜택이 존재해야 해당 사업의 참여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번 외대학보 기사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7면에선 학생 자치활동 참여율 저조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학생들을 치열한 경쟁으로 모는 지금의 사회에서 이들에게 학생 사회로 유도할 동기는 많이 적다. 이로 인한 학생 사회의 위축은 학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이는 우리 사회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외대학보에서 제시한 여러 해결책에 대해 우리학교 학생 사회의 고민이 필요하다.

9면에선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초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과도하게 높은 최저임금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장에게 큰 부담이다. 최저임금은 이와 같이 양날의 검을 지니고 있어 그 액수의 산정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산정 절차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노동계와 기업 간의 합의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산정 절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때다.

어김없이 새 학기는 따뜻한 봄과 함께 우리를 찾아온다. 하지만 학생들이 마주한 학내외의 현실은 아직 차갑다. 외대학보 1100호는 이러한 어두운 현실을 비추는 기자들의 애정 어린 고민이 담겨있다. 오늘도 우리 사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외대학보 기자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그리고 차가운 현실과 당당히 마주하는 우리에게도 격려를 보낸다.



국·부장 고정칼럼

변화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몇 주가 지나며 학생들도 점점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다. 캠퍼스는 활기를 되찾았고 △강의실△도서관△식당 등 학교 곳곳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학생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외대학보 또한 두 번째 마감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번 호에서도 나를 포함한 외대학보 기자들은 독자들에게 뜻깊은 기사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번 1101호에선 학교 및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다뤘다. 먼저 3면 준기획에선 최근 대학교에서 발생한 탄핵 찬반 시위에 대해 논의했다. 이 기사에서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받으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존중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이어서 3면 후속 보도에선 졸업학점 축소로 인한 기존 학생들의 불편함을 조망했다. 학점 축소는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사에서는 이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고 계절학기 확대 필요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4면에선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박동'과의 인터뷰가 실렸다. 학생 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총학생회가 어떤 기초 아래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브랜딩△소통△자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총학생회의 운영 방향을 심층적으로 탐구했다. 학생들이 총학생회 활동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학교 내 자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면에선 우리학교 내 휴게공간 부족 문제를 다뤘다. 많은 학생들이 공강 시간이나 휴식을 취할 공간 부족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공간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조성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기사에서는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7면에선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취업 실태를 다뤘다. 유학생들이 불법 근로에 내몰리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기사에서는 유학생들이 합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분석했다.

8면에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법의 허점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9면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국제 무역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 미중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담겨 있다.

이처럼 이번 1101호에선 학교 및 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며 독자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앞으로도 외대학보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기사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만큼 독자 여러분도 외대학보와 함께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며 더욱 알찬 대학 생활을 이어나시길 바란다.

강예원 부장 08yewon@hufs.ac.kr



잘하지 않아도 돼

대학에서 철학 수업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정언 명령'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무조건적 명령 '~하라'의 형태를 빌어 표현한 문장을 일컫는다. 낮은 개념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은 많은 순간이 정언 명령의 연속임을 알 수 있다. 가방을 멘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치열한 경주였다. '남들을 뛰어넘어라'라는 정언 명령은 스스로를 뒤돌아 볼 틈도 없게 만들었으며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는 괴물을 만들어냈다. 결국 '잘해야 한다'의 강박에 빠진 현대인들은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 심한 좌절을 겪으며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기억도 나지 않은 정도로 오래된 이 강박은 뜨거운 열정과 섞여 때론 역겨운 냄새까지 나는 듯하다. 언제부터 우리 마음에 이런 정언 명령이 자리잡은 것일까. 원인을 하나로만 규정하기 어렵겠지만 경쟁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Ideologie)임은 틀림없다.

대체 '잘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통상적으로 특정인이 일반인보다 업무 수행에 있어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 '잘한다'라는 속성을 부여한다. 즉 이는 타인과 비교할 때 드러나는 상대적인 것이다. 물론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다. 인력도 하나의 상품이 되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강점을 강조하며 값어치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남들과의 비교 경쟁에서 우위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임에도 사람들은 이를 잊고 달리는 것 같다.

지금의 우리는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처음으로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됐다.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고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많은 것들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어쩌면 일생에서 다시 없을지 모르는 이 시간에도 우리 꼭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가?

지금은 '잘할 필요'는 없다.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것' 혹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찾아가는 시간이면 충분하다. 오랜 시간 동안 어깨에 메고 다닌 짐을 잠시 내려두자.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한 번이라도 가슴을 뜨겁게 만든 것이라면 그게 나의 직업이 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물론 무언가를 업으로 삼기 위해선 취미로 즐기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좋아하는게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분명 그 일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이승원(외대학보 편집장)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8seungwo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지성욱
편집장 이승원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부엉이 메신저



- 이제 슬슬 증강할 때 되지 않았나** -익명-
- 내가 벌써 화석이라고?** -익명-
- 개강파티 힘들다** -익명-
- 해외여행 가고싶다** -익명-

십자말풀이

				①		③			⑤
②									⑤
			②						
①									
							④		
				③					
							④		

- 가로**
- '재학생 맞춤형 ○○○○' 는 재학생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해 학생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2면 참조)
 - 교개원의 ○○○○ 설치는 지난해 혁신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됐으나 실질적으로 성취하지 못한 공약 중 하나였다. (4면 참조)
 - 벨기에(Belgium)의 경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대응할 시 반드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 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8면 참조)
 - 설렘 내 ○○○○ 2층 휴게실이 학생들 사이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면 참조)
 - 외국인 ○○○○이란 우리나라에서 유학 또는 연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인을 말한다. (7면 참조)
- 세로**
- 중앙도서관 2층에 위치한 '○○○○' 는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설렘의 대표적인 휴게공간이다. (5면 참조)
 - '2025년 서울캠퍼스 대학안전관리계획' 에 학생 ○○○○에 대해 명시하고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했다. (3면 참조)
 - 우리학교 총동문회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 롯데호텔 서울 3층 ○○○○ 룸에서 이번 해 정기총회 및 '지랑스런 외대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2면 참조)
 - 설렘 총학은 "졸업학점 축소 및 기초 과목 도입 등 ○○○○ 상의 전반적인 이유로 강의시수가 대폭 감축됐다" 고 설명했다. (3면 참조)
 - 시위 당일 ○○○○에서 현장에 안전 관리 인원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3면 참조)
- ※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중국 글로벌 비즈니스의 미래를 이끄는

신승대

해외주재원을 만나다

신승대(중국·중국어 88) 전 주재원은 우리학교 졸업 후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에 입사해 중국 지역 주재원으로서 중국에 파견돼 중국 시장을 개척해 왔다. 세계 무대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해 온 신 전 주재원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도 글로벌 영업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국제적인 환경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신승대 전 주재원을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중국어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릴 때부터 한자와 역사 특히 무협에 큰 관심을 가졌어요. 한문교육을 고려했을 정도로 한자를 좋아했고 무협지에서 중국의 다양한 지역들을 보며 중국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중국어 전공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또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 영향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해당 학과에 더욱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Q2. 우리학교 재학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1~2학년 땐 전공 수업보다 학회와 동아리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학과 내 중국사회연구학회에서 활동하며 대학원생들의 지도로 중국 역사와 지역 역할을 배웠던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천안문 사태를 다룬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복학 후엔 지역학 수업을 통해 중국 사회를 이해하고 비즈니스에 유용한 지식을 쌓았습다. 3~4학년 땐 전공 언어에 집중하며 실력을 키웠고 그 경험이 이후 회사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Q2-1. 재학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및 경험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국악동아리 '얼소리' 활동이었어요. 이를 통해 학교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 첫걸음은 저학년 때 몸담았던 학회 활동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근현대사를 선배와 함께 공부한 경험이 훗날 중국 사람들과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고학년 때 지역학 수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전공에 대한 흥미도 더욱 커졌어요.

Q3. 현대차에 입사하게 된 계기와 중국 주재원으로 파견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현대차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4학년 때 취업 대표로 활동하며 자동차 업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90년대 중반 해당 업계에 매력을 느껴 기아자동차 인턴십(internship)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결국 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주재원으로 파견된 계기는 중국어 능력이 필요했던 시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해외 서비스 부문에서 기술을 배운 후 중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로 자연스럽게 전환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 현대차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북경

에 발령받아 현대차 직영 서비스 센터 및 정비 교육 센터장을 맡아 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이후 중국 쓰촨성 청두로 파견돼 중국 상용차 판매 업무를 7년간 담당하며 중국 전역을 발로 뛰었습니다. 본사 귀임 후 현재는 수소 상용차 관련 아시아 태평양 및 중국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4. 중국으로 파견되기 전 현대차에서 어떤 기업과제와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중국으로 파견되기 전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후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외국어를 전공했지만 자동차 관련 업무에선 제품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와 관련된 지식을 쌓기 위해 적극적으로 학습했습니다. 또한 판매직 업무도 병행하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넓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와 판매 두 가지 업무를 모두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Q5.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 중 하나입니다. 현지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요소와 이를 위해 사용한 현지화 전략 또는 성공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현대차가 처음 중국에 진출했을 때 중국 업체들보다 뛰어난 제품 우위를 갖추고 유럽 상위 브랜드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 현지 업체들의 기술력이 향상되며 가성비에서 밀리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중국 현지 고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밝은 톤의 색상을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들을 위해 차량의 색상과 시트 색상을 이에 맞춰 조정했으며 음료를 자주 마시는 문화에 맞춰 차량 내 컵홀더 디자인도 개선했습니다. 또한 운전 습관에 맞춰 빠른 응답 속도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중국 연태(烟台市)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지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차량을 개발했습니다. 지금은 중국 내 여러 생산 공장을 수출 전진 기지로 활용할 계획을 검토 중이며 앞으로 친환경 차량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Q6.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초기엔 한국에서 생산된 모델을 그대로 중국 시장에 도입해 판매했으나 당시엔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선 현지 소비자들의 취향과 요구가 반영된 제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차종이 중국에서만 생산됐으나 현재 소비자들의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도를 통해 점차 중국 시장에 맞는 차량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현지 특성에 맞춘 차량이 출시된다면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7. 주재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겪은 고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재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큰 고충은 현지 직원들과의 갈등과 인사 관리였습니다. 주재원은 현지에서 리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때 그 지역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식 방식을 고수해 일을 하게 되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기에 초반엔 저도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해외 경험이 부족했기에 현지 직원들과의 소통과 업무 조정 또한 힘들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노후우가 쌓여 서로 적응해 나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갈등도 훨씬 더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사와 현지 간의 의사소통 문제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주어진 업무는 주로 저녁 시간에 이뤄지고 현지 직원들과의 업무는 낮에 이뤄져 시간대가 맞지 않아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그럼에도 본사와 현지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면서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Q8. 중국에서의 현지 생활 중 특별히 인상 깊었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문화적 경험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국에서의 생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문화적 오해에서 벗어나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초기엔 술을 많이 마셔야만 관계가 원활하고 예의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사람들은 과음할 정도로 술을 즐기진 않는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술에 대한 부담을 덜고 각자의 주량을 존중하며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데 더 도움이 된단 걸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더 자연스럽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Q9. 앞으로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나 직업적인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맡은 자동차 해외 영업 업무에서 수소 상용차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미래 모빌리티(mobility)는 친환경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수소차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확립하는 것이 제 새로운 도전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소차 판매 생태계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은퇴 이후 통일 문제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대륙과 연결되지 않고 바다 건너에 있는 섬나라로 '북한'이 있죠. 북한은 매우 빈곤한 나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후대 그대로 미래가 제약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두 문제를 해결하고자 북한과 통일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으며 현재 총신대 통일개발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 산하 국립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며 북한을 통해 우리나라 대륙이 연결될 길이 열린다면 우리 청년 세대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믿습니다.

Q10.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업무 환경에서 활약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나 마음가짐에 대해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학교는 국제적인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다면 자신의 소양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학을 전공하는 후배들에겐 자신이 선택한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세계적인 환경에서 필수적인 영어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방학을 활용해 관심 있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경험을 쌓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환경에서 활약하려면 언어 실력과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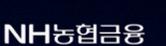
이나경 기자 10leenagyong@hufs.ac.kr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SINCE 1965

NH농협생명



NH농협금융

60년 동안 한결같이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밝혀 온 NH농협생명.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두의 인생을 비추겠습니다.

100년 NH농협생명이 든든한 빛이 되겠습니다